

주요 내용

1. [슬기로운 목회 생활 : 2023 한국교회 목회 실태]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의 우울증 환자 추이
 - 2) 빈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넘버즈에서는 ‘개신교인/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생활, 교회 인식’ 등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네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 이후 목회자의 목회 활동 실태, 설교 인식 및 평가, 목회 방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비율’을 보면 담임목사 4명 중 1명 (24%)만이 현재 설교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 전인 2012년 55%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목회 코칭’(70%)이나 ‘목회 컨설팅’(67%)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 10명 중 7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210호>를 통해 목회자의 목회 환경과 인식, 필요와 고민을 참고하여 개교회의 목회 방향성 이해와 수립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넘버즈 발행 목차

- ①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 ②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 ③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④ **목회자의 목회 실태**
- ⑤ 목회자의 목회 인식 및 라이프스타일

*일정과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교회(개신교) 담임 목사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표본 규모	802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 및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DB를 활용, 목회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진행함)
표본 추출 방법	전국 교회의 교회규모별 비례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조사 기간	2023년 01월 31일 ~ 02월 12일 (13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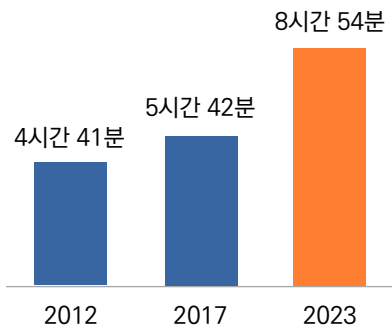
01

[설교 실태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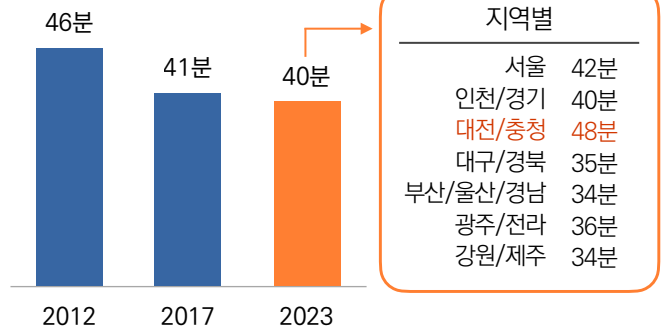
주일 설교 준비 시간, 10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 ▶ 담임목사들의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한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조사결과 평균 8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4시간 41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설교 준비를 위해 여러 자료 수집과 연구 등 설교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반면 평균 대예배 설교 시간은 40분으로 2012년 46분에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이 48분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 평균 준비 시간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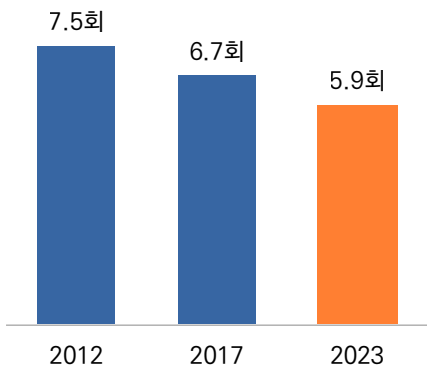
[그림] 주일 대예배 평균 설교 시간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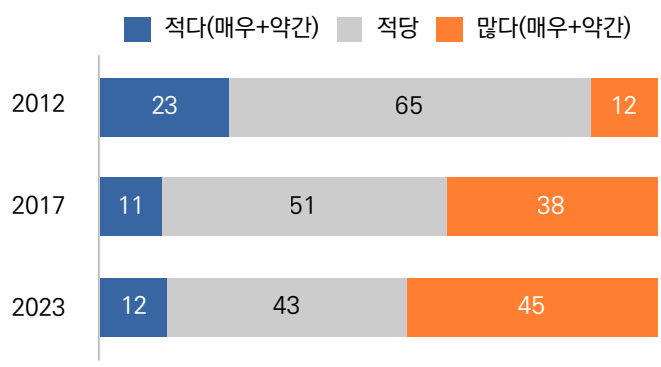
◎ 설교 횟수 줄고 있지만, '설교 횟수 많다' 인식은 증가!

- ▶ 담임목사들에게 지난 한 주간 평균 설교 횟수를 물은 결과, 평균 5.9회였는데, 이는 2012년 7.5회, 2017년 6.7회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 ▶ 이렇게 설교 횟수는 줄고 있지만, 설교 횟수가 많다고 생각(매우+약간)하는 목회자는 45%로 10년 전인 2012년 12%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설교 준비 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해 보면 설교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설교 1편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필요하기에 상대적으로 설교 횟수가 많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난 한 주간 평균 설교 횟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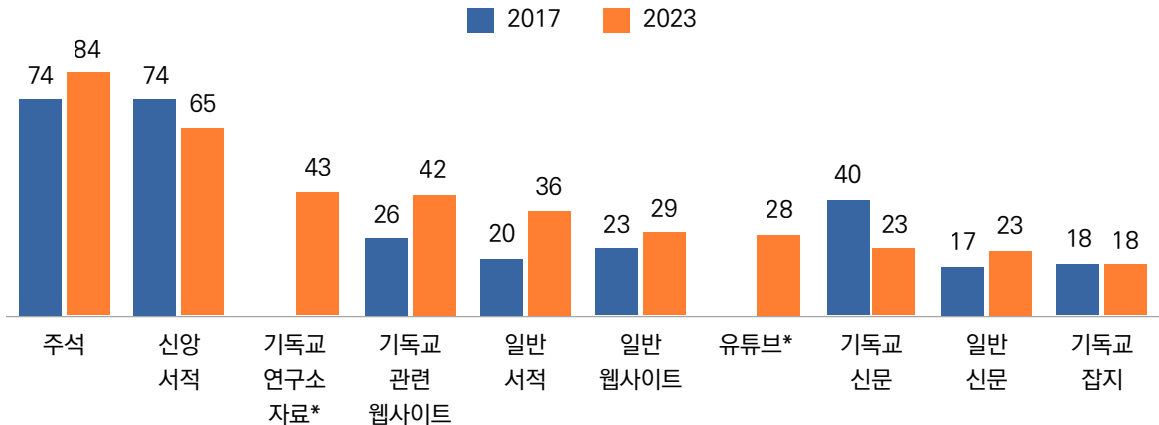
[그림] 설교 횟수에 대한 생각 (담임목사, %)



◎ 주일 설교 위해 일반 서적, 웹 사이트 이용률 크게 증가

- ▶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해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주석'이 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앙 서적' 65%, '기독교 연구소 자료' 43% 등의 순이었다.
- ▶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2023년에는 '신앙서적'과 '기독교 신문'을 참고하는 비율은 줄었고, 주석을 기본으로 하되 기독교 자료/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일반서적, 유튜브, 일반신문 등의 자료 참조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인문학적 주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를 위해 참고한 자료 (담임목사, 지난 주일 기준,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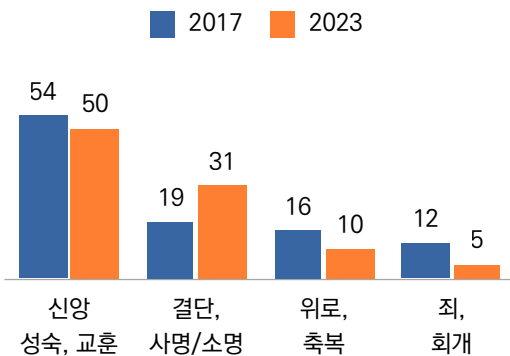


*2023년 조사항목 신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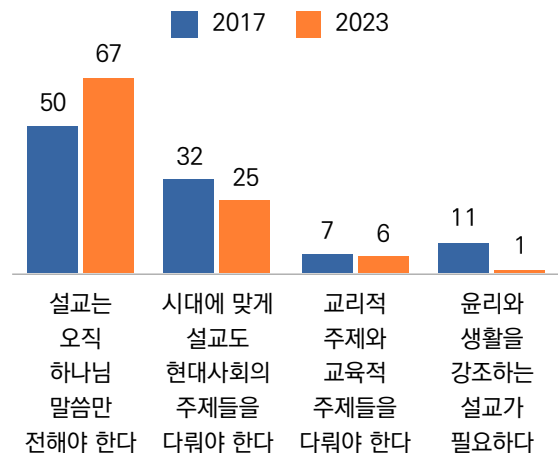
◎ 설교 주제,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져

- ▶ 주일 대예배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신앙 성숙, 교훈'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단, 사명/소명' 31%, '위로, 축복' 10% 등의 순이었다. 2017년 대비 '결단, 사명/소명' 응답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 이번에는 설교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담임목사 3명 중 2명(67%)은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를 꼽아 가장 높았는데, 해당 의견에 대한 인식은 2017년 조사 대비 높아지고 있었다. 반면 '시대에 맞게 현대사회의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은 2023년 25%로 2017년 32%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일 대예배 설교 내용 (담임목사, 지난 주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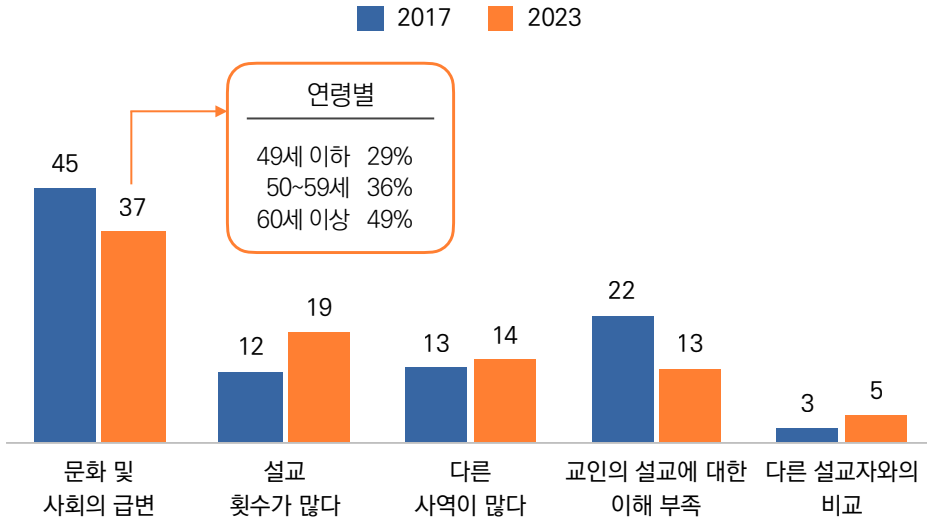
[그림] 설교 주제에 관한 의견 (담임목사, %)



◎ 설교 사역의 어려운 점, ‘급변하는 사회 문화’!

- ▶ 설교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문화 및 사회의 급변’을 꼽은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교 횟수가 많다’ 19%, ‘다른 사역이 많다’ 14% 등의 순이었다.
- ▶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 및 사회의 급변’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담임목사의 경우 설교 사역에서 ‘문화 및 사회의 급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그림] 설교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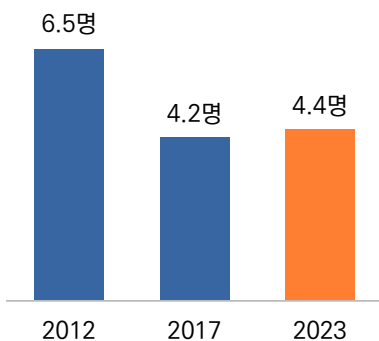
02

[목회 활동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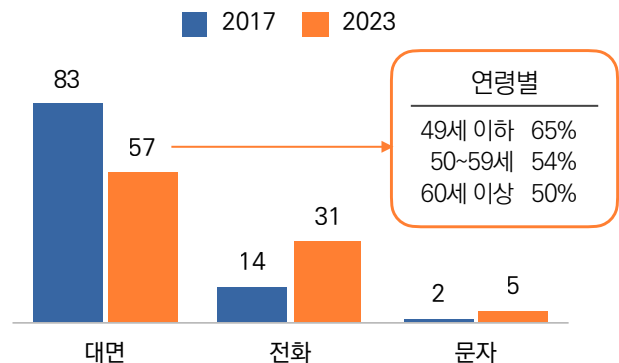
대면 상담(심방) 줄고, 전화 상담(심방) 증가 추세!

- ▶ 지난 한 주간의 목회상담(심방)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명으로 나타났다. 월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토, 일을 제외한다면 화~금 기준 하루 1명 남짓 교인과의 상담 또는 심방을 하는 셈이다.
- ▶ 목회상담(심방) 방식으로는 2017년은 대면 방식이 83%로 주를 이루었으나 2023년 57%로 낮아진 반면, ‘전화 심방’이 31%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목회자일수록 ‘대면 상담(심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목회상담(심방) 평균 횟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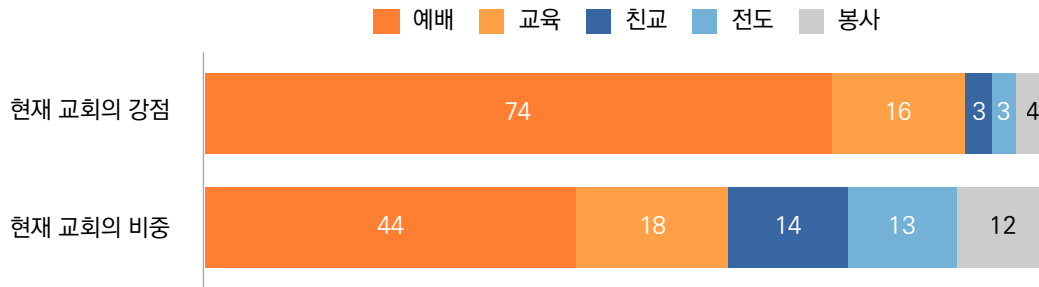
[그림] 목회상담(심방) 방식 (담임목사, 상위 3위, %)



◎ 현재 목회 집중 분야, ‘예배’ 다음으로 ‘교육’!

- ▶ 목회의 주요 다섯 가지 분야(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를 제시하고 이 중 시무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예배’를 꼽은 비율이 목회자 4명 중 3명꼴(74%)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6%로 뒤를 이었다.
- ▶ 현재 교회의 다섯 가지 목회 분야별 비중은 어떠할까? ‘예배’의 비중이 44%로 ‘목회 분야별 강점’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 18%, ‘친교’ 14% 등의 순이었다. 개교회의 목회가 예배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목회 분야별 강점/비중 (담임목사, %)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50대 이하 목회자, 60대보다 목회 활동력 높아!

- ▶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의 회복도로 목회 활동력을 파악해보았다. ‘성경공부’, ‘구제/봉사’, ‘소그룹 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에서 평균 50~60%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목회 활동력이 높았다. 즉 ‘4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평균보다 10% 이상 사역 활동의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교인 증가 예상하는 비율도 76%로 타 연령대보다 높았다.

[표]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정도 (담임목사, 코로나 이전 활동 상태를 100으로 가정한 현재 상태)

구분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회복율					전년 대비 예산 증가한 비율	향후 교인 증가 예상*
	제자훈련, 성경공부	지역사회 구제/봉사	소그룹 활동	전도/ 선교	새신자 등록		
전체	61	60	59	56	50	38	71
연령	49세 이하	71 ↑	66 ↑	67 ↑	63 ↑	66 ↑	76 ↑
	50~59세	59	58	57	54	47	71
	60세 이상	52	55	56	52	36	66

*시무 교회의 향후 출석교인 증가 예상을 물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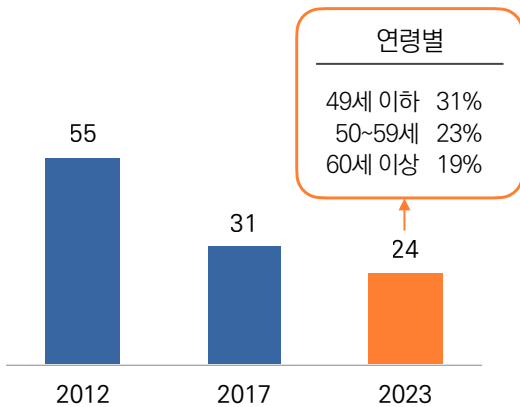
03

[목회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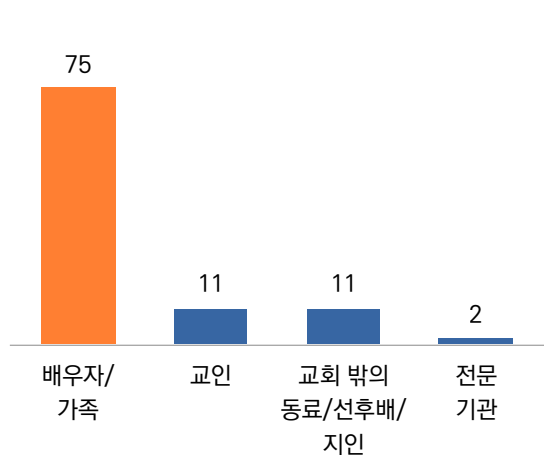
설교 피드백, 2012년 55% → 2023년 24%로 크게 낮아져!

- ▶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12년 목회자 중 55%가 '정기적 설교 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나, 2023년 24%로 10년 사이 설교 피드백을 받는 비율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현재 설교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 ▶ 설교 피드백은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75%로 압도적이었고, 그 외에 '교인' 11%, '교회 밖의 지인' 11% 등으로 응답했다.
- ▶ 젊은 목회자일수록 설교 피드백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정기적 설교 평가(피드백) 받는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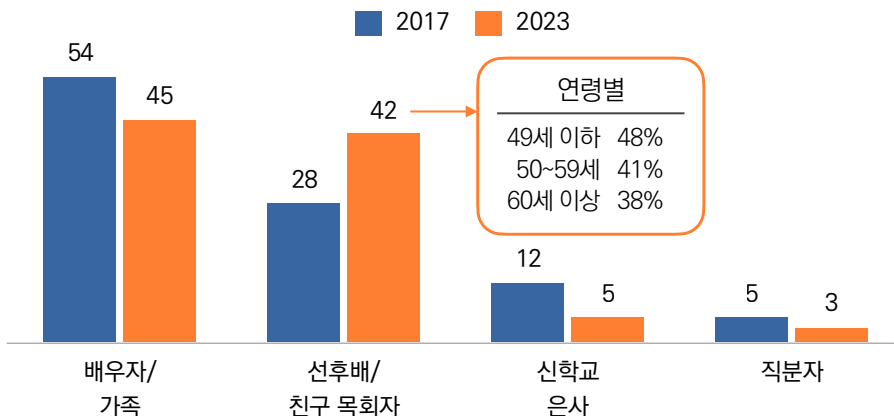
[그림] 설교 평가(피드백) 받는 대상 (정기적 설교 평가 받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 영적 도움 주는 사람, '배우자/가족' 줄고, '선후배/친구 목회자' 늘어!

- ▶ 목회자에게 가장 많은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가족'(45%)과 '선후배/친구 목회자'(4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배우자/가족을 꼽은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선후배/친구 목회자'에게 영적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p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 ▶ '선후배/친구 목회자'에게 영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젊은 목회자의 경우 '선후배/친구 목회자' 간 영적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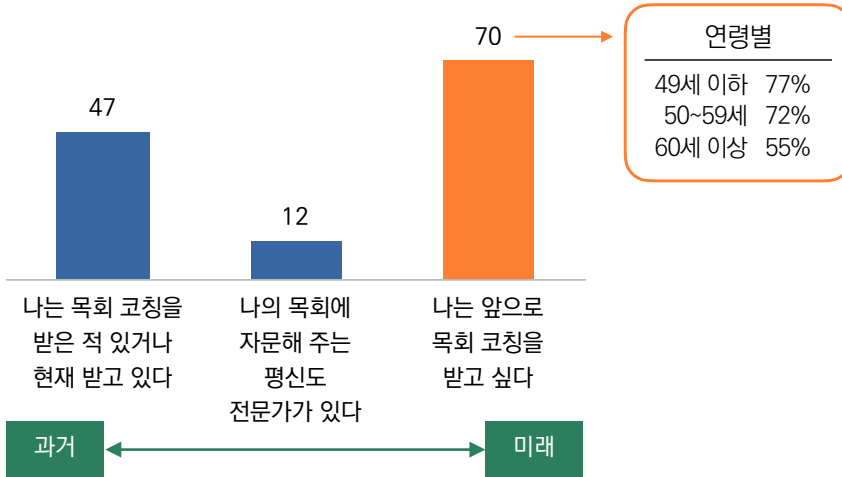
[그림] 영적 도움 주는 사람 (담임목사, %)



◎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 ▶ 이번에는 목회 코칭/자문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목회 코칭 경험률’은 전체 담임목회자의 절반가량(47%) 이었고, ‘목회에 자문해 주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으로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에 담임목사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해 ‘목회 코칭’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엿볼 수 있었다.
- ▶ 연령별로 보면 젊은 목회자일수록 ‘목회 코칭 의향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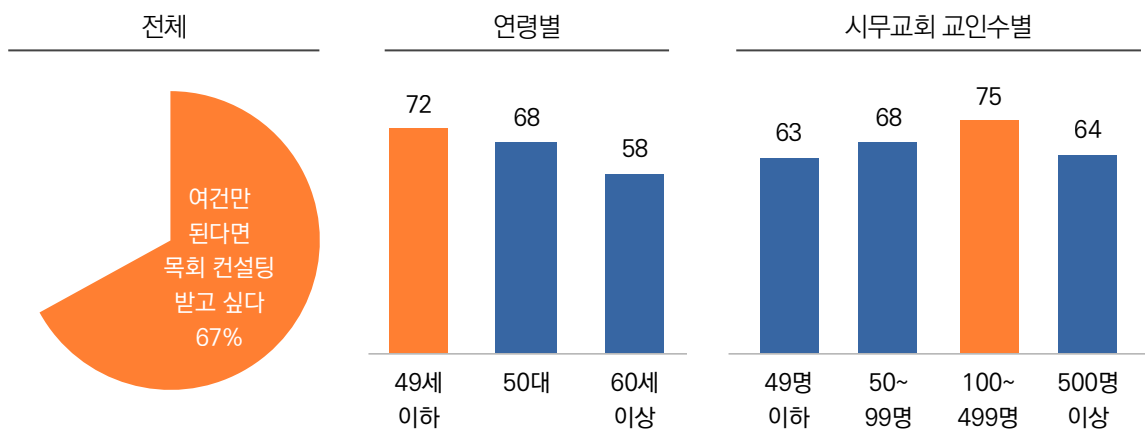
[그림] 목회 코칭 및 목회 계획 (담임목사, ‘그렇다’ 비율, %)



◎ ‘목회 컨설팅 받고 싶다’, 67%!

- ▶ ‘여건만 된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묻는 질문에 전체 담임목사의 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젊은 목회자 일수록 목회 컨설팅 받고 싶은 비율이 높았고,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인수 100~499명의 중형급 교회 담임목사가 75%로 가장 높았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목회 컨설팅’ 받고 싶은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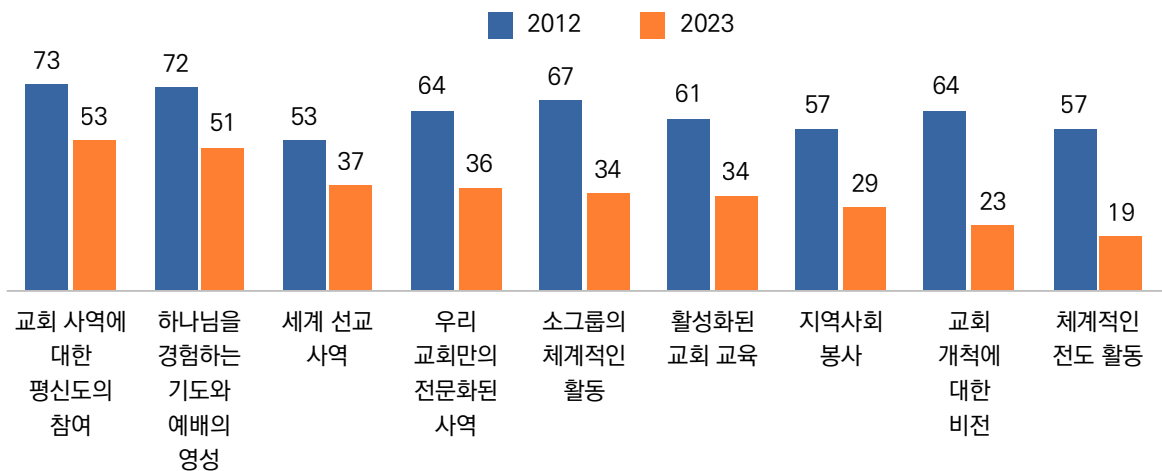
04

[시무교회 평가]

담임목사의 시무교회 만족도, 10년 전 대비 떨어져!

- ▶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척도)를 살펴보았다. ‘교회 사역에 대한 일반 성도의 참여’(53%)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와 예배의 영성’(51%)만이 50% 이상 만족도를 보였으며, ‘체계적인 전도 활동’(19%)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전도 활동이 약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 2012년 조사 대비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그 차이가 41%p에 달했다.

[그림] 시무교회 항목별 만족도 (담임목사,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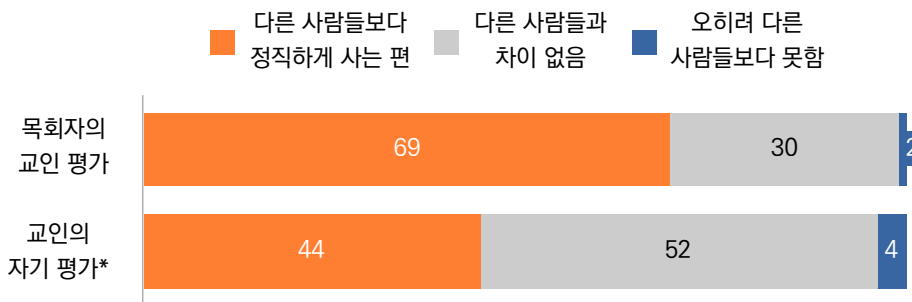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목회자의 교인 평가, 교인 스스로 평가보다 더 관대, 긍정적!

- ▶ 목회자는 시무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무교회의 교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목회자가 10명 중 7명(69%) 정도로 나타났다.
- ▶ 이는 ‘교인 스스로 평가하는 정직성’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사는 편’이라는 응답에 대해 목회자는 자신의 교인에 대해 69%가, 교인 스스로는 44%가 응답해, 목회자의 교인 평가가 교인 스스로가 평가한 것보다 관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림] 교인 정직성 평가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p.261.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시사점

한국교회 담임목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 돌봄, 교회 행사 기획 및 추진, 교회 행정 등 목사에게 부여된 임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상당히 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담임목사의 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설교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해야 할 설교가 너무 많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담임목사는 일주일 동안에 평균 5.9회 설교를 한다. 비록 2012년의 7.5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1회 정도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설교가 성도들이 놓인 상황(CONTEXT)을 파악해서 성경(TEXT)을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상황에 적용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설교는 폭넓은 독서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 깊은 성경 해석 능력과 영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매일 평균 1회의 설교를 해야 한다면 숙성된 설교는 나오기 어렵다. 더욱이 설교 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문화 및 사회의 급변'(37%)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적 전환기라는 시대 상황이 설교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일 낮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2012년의 4시간 41분에서 2023년에 8시간 54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설교 준비 시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결과이다. 주일 낮 예배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2017년에 비해 신앙 서적과 기독교 신문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주석, 기독교 연구소 자료, 기독교 및 일반 사회 웹사이트, 유튜브 등 2017년보다 자료 소스가 훨씬 다양해졌는데 이는 설교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기독교 연구소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서적과 일반 웹사이트, 일반 신문 활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현실 지향적 설교를 고민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처럼 설교 시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경로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된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담임목사는 설교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교인이 감소하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욕구와 목회 환경이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어서 목회자들은 현실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고, 변화된 현실에 부합한 목회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 코칭/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담임목사들은 '앞으로 목회 코칭을 받고 싶다'에 대해서는 70%가, '여건만 된다면 목회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목회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와 목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슬기로운 인적 네트워킹'이다. 요즘 JTBC 방송에서 인기 프로그램인 '최강야구'를 보면 김성근 감독이 베테랑 야구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투구 자세나 타격 자세를 끊임없이 지적한다.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목회자에게도 이런 어드바이저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 짓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더 발전된 설교와 목회를 할 수 있다.

둘째로 '슬기로운 정보 큐레이팅'이 필요하다. 지식의 발전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무엇을 아는가(KNOW WHAT)'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KNOW WHERE)'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외워야 했지만, 지금은 전화번호가 스마트폰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유형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정보 파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해서 좀 더 중요한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넘버즈'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팅 서비스이다)

현대는 목회자 단독의 능력으로는 목회하기 쉽지 않은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정보를 엮는 것(인적 네트워킹, 정보 큐레이팅)은 개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에 목회자들이 실천으로 옮길 것을 제언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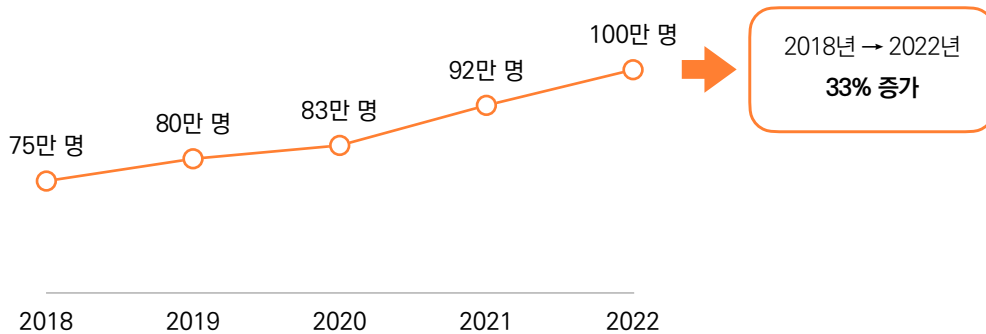
- 1.[한국의 우울증 환자 추이]
- 2.[빈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지난 5년간 33% 증가

- ▶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신 건강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우울증 환자는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 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3년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33%나 증가한 셈이다.

[그림] 우울증 진료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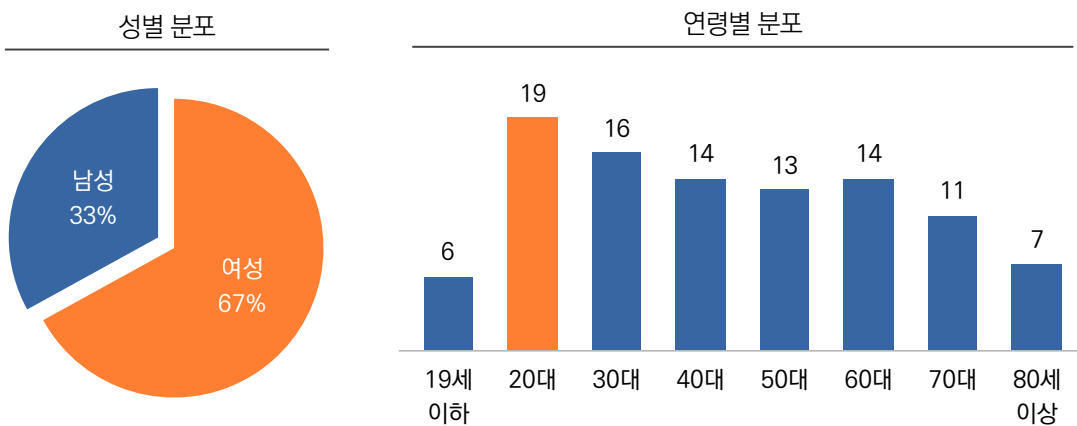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남인순 국회의원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20대 여성 가장 많다' 보도자료 참조, 2023.10.03.

◎ 우울증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 ▶ 우울증 진료 인원(2022년 기준)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67%로 남성(33%)보다 2배 많았다.
- ▶ 연령별로는 20대가 19%로 가장 높았고, 10대 이하도 6%를 차지했다.

[그림] 우울증 진료 인원 비율 (2022년 기준, 성별, 연령별, %)



*자료 출처 : 남인순 국회의원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20대 여성 가장 많다' 보도자료 참조, 2023.10.03.

◎ 20대 우울증 환자, 최근 5년간 90% 증가!

- ▶ 2022년 기준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 증가율을 2018년 대비 살펴보았다. 최근 5년 새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도 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울증 환자수 역시 20~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명)

연령	2018년	2022년	증가율
19세 이하	38,217	61,161	60%
20대	97,675	185,942	90%
30대	90,156	160,108	78%
40대	100,350	142,086	42%
50대	121,937	126,453	4%
60대	128,264	143,090	12%
70대	117,361	110,883	-6%
80세 이상	59,016	71,021	20%
계	752,976	1,000,74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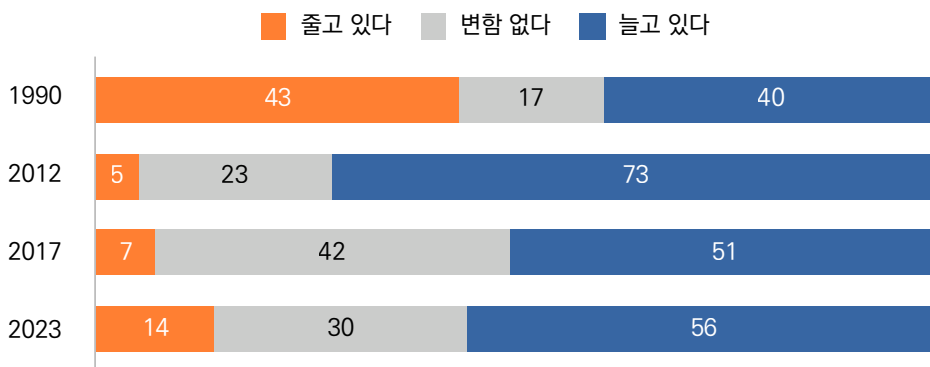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남인순 국회의원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20대 여성 가장 많다' 보도자료 참조, 2023.10.03.



우리 국민 56%, '해마다 극빈가구 늘어나고 있다'!

- ▶ 오는 10월 17일 UN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19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조사한 '빈곤에 대한 국민 인식' 리포트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우리 국민들에게 '극빈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56%가 '늘고 있다'고 응답했고, '변함없다' 30%, '줄고 있다' 14%였다.
- ▶ 1990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와 감소 의견이 각각 40%, 43%로 팽팽히 맞섰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 의견이 73%까지 치솟아 최고점을 찍었다. 실질적 경제수준은 한 세대를 거치며 분명 더 나아졌으나 극빈가구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보다도 좋지 않은데, 가구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그림] 극빈가구 증감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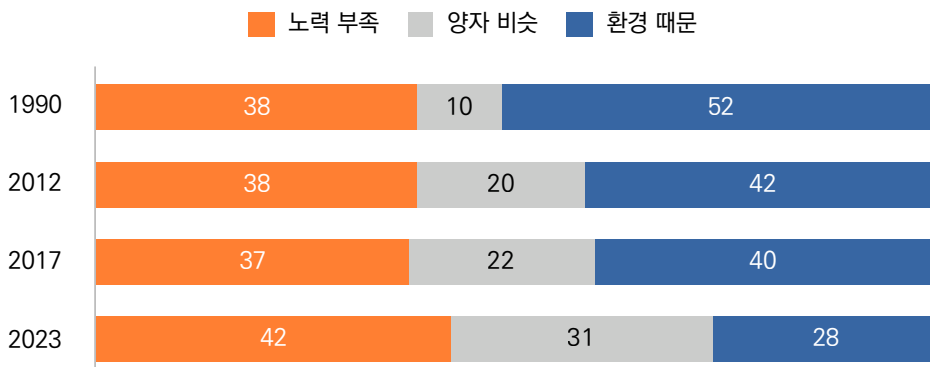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빈곤에 대한 인식 1990-2023', 2023.09.14. (만 19세 이상 1,501명, 면접조사, 2023.02.10.-02.28.)

◎ 가난의 원인, 예전에는 '환경 때문', 지금은 '노력 부족'!

- ▶ 사람들은 가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 이번 조사 결과, '노력 부족'이 42%로 가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됐고, '양자 비슷'과 '환경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31%, 28%로 나타났다. 1990년 첫 조사에서만 해도 가난이 '환경 때문'이란 의견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부터는 '환경 때문' 응답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노력 부족'을 꼽은 비율이 처음으로 '환경 때문'을 앞섰다.

[그림] 가난의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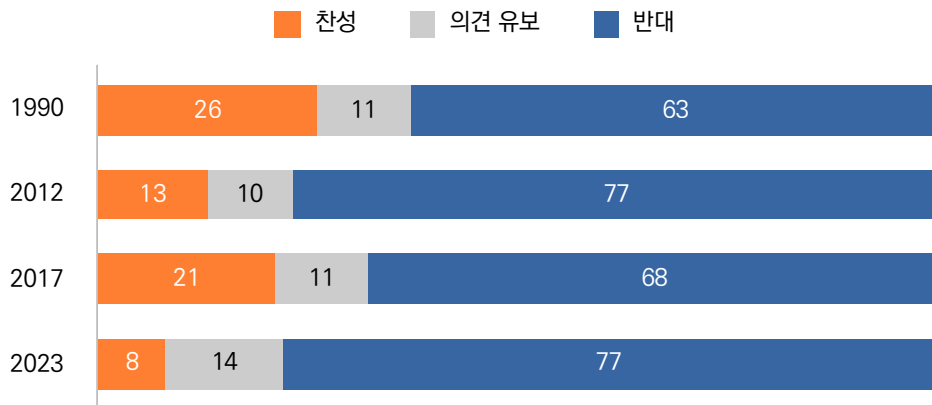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빈곤에 대한 인식 1990-2023', 2023.09.14. (만 19세 이상 1,501명, 면접조사, 2023.02.10.-02.28.)

◎ 국민자 위해 세금 2배 더 낼 용의, 역대 최저치

- ▶ 국민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찬성은 8%에 불과했고, 77%가 반대,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 4차례의 찬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은 30년 전 대비 1/3수준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는 훨씬 개인화/파편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그림] 국민자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 부담 의견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빈곤에 대한 인식 1900~2023', 2023.09.14. (만 19세 이상 1,501명, 면접조사, 2023.02.10.~02.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6호 \(2023년 9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신뢰 등

[윤석열도 이재명도 제자리걸음 \[2023 신뢰도 조사\]](#)

시사IN_2023.10.02.

◎ 사회 일반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연론속의 여론_2023.10.03.

[코로나 끝나자 자살률 낮아졌다...10만명당 25명](#)

연합뉴스_2023.09.21.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아](#)

연합뉴스_2023.10.03.

[응급실 중독환자 3명 중 2명 '의도적 중독'...20대가 가장 많아](#)

연합뉴스_2023.09.27.

[기대여명 증가에...국민연금 평균 수급기간 6.8년→15.75년](#)

연합뉴스_2023.09.28.

[노인 자살률 OECD 최악... "국가 금전지원, 우울 완화 효과 확인"](#)

연합뉴스_2023.10.02.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

연합뉴스_2023.10.04.

["소비자들, 의료데이터 활용시 '정보유출' 우려...불안 해소해야"](#)

연합뉴스_2023.09.20.

["노동자 생활 불안할수록 보수화" 노동연구자 박사논문](#)

연합뉴스_2023.10.01.

[고금리 길어지자...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원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3.10.04.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8조 추정...향후 3년간 10조 육박할 듯](#)

연합뉴스_2023.10.04.

["월 평균 430만원 썼는데..." 50대 현역의 은퇴 이후 생활비](#)

조선일보_2023.10.01.

[미혼 40% "연인의 집착 경험했다"... '최악의 집착' 1위는?"](#)

조선일보_2023.09.30.

[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신상 공개해도 절반은 '외면'](#)

국민일보_2023.10.0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아동 / 청소년 / 청년

[아동 치아 건강마저 '빈부격차'...저소득층이 총치 2.5배](#)

연합뉴스_2023.10.03.

[“농어촌 청소년 연간 사교육비, 도시 청소년 절반 수준”](#)

연합뉴스_2023.10.02.

[10대 사이버 성폭력 2년새 5배로 뛰었다](#)

조선일보_2023.10.05.

[서울대 신입생도 “의대 가자”... 올 418명 휴학](#)

조선일보_2023.10.06.

[“난 잘해왔어. 앞으로도 그럴거야”... ‘초종교 생기부’로 생기찾는 2030](#)

매일경제_2023.10.03.

◎ 기업 / 경제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가장 큰 타격은 이것 \(민생경제 현황 및 인식조사\)](#)

매일경제_2023.10.02.

["韓 기업부채 급증세...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웃돌아"](#)

연합뉴스_2023.09.29.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5년간 92→108%...26개국 최고 증가폭](#)

연합뉴스_2023.10.03.

[9월 외환보유액 4141억달러...세계 9위 수준](#)

조선비즈_2023.10.06.

['상위 1%' 가수 연 소득 평균 38억원...99%는 1천100만원](#)

연합뉴스_2023.10.07.

[“초고령화는 위기 아닌 기회 ‘나이 들면 은퇴’ 편견 버리자”](#)

조선일보_2023.10.08.

[“월화수목일일일’에 ‘버킷리스트’ 이뤄준다”...직원들 사로잡는 이색 기업들](#)

매일경제_2023.09.29.

[다른 듯 같은 세대별 직장생활](#)

조선일보(톱클래스)_2023.10.04.

["신입이 건배사 해봐" 이것만 없으면...MZ세대도 "회식 좋아요"](#)

머니투데이_2023.10.03.

[13~40년치 일감 챙겼다...K배터리 3사, 수주액 1000조원 돌파](#)

조선일보_2023.10.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미국인 절반 “北 침공시 미군의 韓 방어 반대”… 美 고립주의 심화](#)

[동아일보_2023.10.06.](#)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 국채금리 급등…10년물 4.8% 돌파](#)

[연합뉴스_2023.10.04.](#)

["살찐 여성은 임금 10% 적다"...남성 비해 가혹한 '비만 벌금'](#)

[중앙일보_2023.10.01.](#)

[1인 2직업 하세요, 외국인도 환영… 고령화 일본의 선택](#)

[국민일보_2023.10.02.](#)

[중국 Z세대는 왜 드러눕나, 좌절을 표시하는 ‘탕핑 세대’](#)

[조선일보_2023.10.02.](#)

◎ 건강

[눈 밑 쾅한 이모, 기침 많아진 삼촌…이게 다 비염 때문?](#)

[매일경제_2023.09.28.](#)

[“걷기, 우울감 낮추는 효과…짧게라도 매일 걷는 게 중요”](#)

[연합뉴스_2023.09.27.](#)

◎ 기독교 / 종교

[해외교회, 여성 지도자 속속 배출하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유리천장’](#)

[더미션\(국민일보\)_2023.10.04.](#)

[개신교인 신앙, 미디어 영향력 ↑, 출석교회 설교 ↓](#)

[국민일보_2023.09.27.](#)

[목회자 66% “내 자녀, 목회자 자녀여서 상처받는 것 같다”](#)

[기독일보_2023.09.2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